

투데이 칼럼

유독가스 흡입, 질식사 대피요령은 이렇게

최 근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일수록 흡입으로 불들어 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다.

지난달 제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경남 밀양시 급성기병병원 '세종병원'에서 26일 화재가 나 4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세종병원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원 안으로 유입되면서 1층, 2층, 5층 입원환자 100여 명 중 현재까지 4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특히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흡입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지는 사람들이 많아 화재 때 마시는 연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화재 때 목숨을 지키는 지혜가 요구된다.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는 뜨거운 공기로 열분해한 여러 가지 가스들이 섞여있다.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으로 올라가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 방화문이 완결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 난 곳의 계단이 굴뚝(연기통로)이 되어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은 연기는 가스가 아니고 불에 탄 물질의 고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이고 짐뎁(탄소)이 주성분이며 수소 등의 가스도 달라붙어있다.

화재 초기나 불을 끌 때 보이는 흰 연기는 물과 같은 액체가 차가

워져 생긴 아주 작은 입자로 안개와 같다.

모든 연기는 시계를 막으므로 비상구나 유도등이 보이지 않아 빠른 피난은 물론 초기진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에 따른 질식사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데다 유독가스까지 섞여 화재현장에서 들이마시는 연기는 매우 위험하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제천대형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검발라화재 때 많은 목숨을 앗아간 주범은 유독가스였다.

비교적 빠른 진화에도 삼시간에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다.

특히 당황하면 평소보다 호흡량이 3배쯤 많아져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마시게 돼 치명상을 입는다.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섞인 연

기를 마시면 유독물질이 폐에 파고 들어 위험해진다.

몸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숨을 쉴 때 일산화탄소가 산소공급을 막아 저산소증과 흡입화상을 일으킨다.

화재현장에서 연기를 마셨을 때 무엇보다도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하고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빨리 피해야 한다.

만약 화재로 코털이 불에 그슬리거나 타고 얼굴, 코, 입안과 주변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원 목소리와 검은 가래 등의 증상이 있으면 흡입화상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유독가스, 연기가 많은 화재현장 대피요령 몸을 최대한 낮추어 유도등 불빛에 따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작은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잘

막고 벽을 짚어가면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비상조명등, 비상구 쪽으로 가되 건물구조를 잘 아는 건물주나 종업원 등의 말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된다.

상황에 따라 불길 속을 뚫고 나아할 땐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야 화상을 입지 않는다.

혹시, 유독가스 대피용 비닐봉투가 있다면 최대한 공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얼굴을 감싸고 대피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살아가면서 만일을 대비해 소화전 사용법과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을 가족들과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기침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화점에 불을 끈다고 불을 껐으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분말형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 안전하다.

가족을 사망한다면 이러한 사소한 준비가 유사시에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초기 화재의 경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2~3대의 위력보다 더 크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도 소화기를 구입해서 주방근처와 현관 입구에 1개씩 비치하여 만일에 대비하면 어떨까?

박윤정 사회복지사



독자제언

신학기 학교폭력 발생시 신속 파악을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이 다가온다.

새싹처럼 푸르고 아침이슬처럼 맑은 우리 아이들이 살레인과 함께 신학년, 신학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신학기 일지도 모른다.

학교폭력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학기(3월)는 다른 달에 비해 학교폭력 상담요청도 30%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신학기에는 새로운 친구 관계로 인한 학생들간 일종의 '기싸움' 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겨울방학으로 학교폭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던 피해학생들이 신학과 함께 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피해를 입기 전

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학생이 더 큰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정에서는 평소보다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와 관심으로 학교폭력 피해 징후가 있는지 살펴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내 자녀에게 학교폭력 피해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폭력 상담기관에 문의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는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국번없이 117) 또는 #0117로 문자 전송), 1388청소년 긴급전화, Wee센터(www.wee.go.kr) 등이 있다.

정성훈 순창경찰서 순화피해조사경위

독자제언

어린이 안전띠 착용, 자녀들을 위한 실천

자동차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어린이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 할 것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띠에기에 우리 모두 출발 전 다시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도록 하자.

어린이 교통안전에 있어 안전띠 착용은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여 앉히지 않으면 일반 과태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경찰청에서 올바른 안전띠의 착용을 위해 안내한 어린이 자동차 탑승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를 안고 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성인용 안전벨트 대신 어린이용 안전띠, 부스트 등 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카시트를 꼭 이용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혼자 차안에 남겨두지 않도록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 시보다 치사율이 12배나 높고 어린이는 어른보다 2배나 더 위험하다고 한다.

자칫 모든 것을 앗아 갈수도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안전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하지는 않았는지 안전띠를 앞두고 한번쯤 되돌아 볼 때다.

이호용진안경찰서 동향안전피해조사경위

사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에 전력 투구해야

전북도에 할 말이 있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종합 전시관에서 긴급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어제 그제 미흡해 보인다.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성명서의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 약발이 있을 지 의문시된다. 군산시민들이 부실 경영 책임을 물어 한국 GM 경영진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선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군산시민들은 고발에 뜻을 같이하는 동화자들을 모아 내달 5일까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전북도와 각 시군이 보여주는 행보와 비교해 그 열기가 뜨겁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군산 살리기에 나섰다 GM에 대한 행보도 강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 측을 향해서도 그래야 한다. 말리 동떨어진 장소에서 피켓이나 들고 목소리를 크게 해봤자 그 효험이 있을 턱이 없다.

전북도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지금 군산의 몰락 때문에

전북 전체의 경제가 지진을 당한 듯 함께 흔들리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간 힘을 써야겠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사태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GM의 폐쇄 조짐이 알려진 게 지난해의 일인데 전북도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의 추세를 보며 행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사실이지 군산 경제가 흔들려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이낙연 총리의 방문과 관련해 도민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곤란하다. 묵묵 부담이라면 이낙연 총리의 이번 방문도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때와 같은 맹탕 방문에 지나지 않을 의미한다. 전북도는 작금의 사태를 두고 정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한다.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군산 경제가 무너진 이때,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할 말을 해야 한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이번의 일을 계기로 펼쳐 일어나야 한다. 전북도는 군산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쳐 마땅하다는 주문이다.

지역발전 발굴사업들의 행방

지역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에 다시 주목하고픈 때이다. 군산과 남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울한 까닭이다. 전북도는 그것을 상쇄할 그 무엇을 도민에게 주어야 한다. 지난날 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 발전 청사진이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이 큰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절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싶어서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게 많이 부족했다. 전북도의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이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전북도가 여러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추진돼야만 한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발전 사업은 국회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사업들을 분개도에 올려놓으려면 그래야 한다. 그걸 위해서 관계자들은 얼마나 힘썼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하기야 이미 손에 쥐어진 것도 놓치는 일이 많았으니 그에 마음 쓸 여력이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때도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은 고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의식이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좀더 고민해줘야 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